

7월13일(월)/누가복음8:19-21

제목: 진정한 이웃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마 13:55)이 한참 사역중인 예수님을 보려고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19,20절) 효자로 소문난 예수가 가족들을 잘 부양하던 30세에 갑자기 집을 나가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돌아다녔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가 귀신들린 줄 알았고(막3:21) 가족들은 그를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와 있다. 이 때 예수님은 자기 사역을 중단시키려는 가족들을 향하여 “누가 나의 부모며 형제냐?” (21절) 말씀하셨다. 그를 가장 이해 못했던 사람들은 가족들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중단시키려 나왔다. 그 순간 그들은 남보다 못한 가족이었다. 우리에게도 가족이 있지만 때로는 남보다 못한 가족이 있다. 예수님께서도 이를 느끼시고 “나의 진정한 혈육은 말씀을 행하는 자이다” (21) 외치셨다. 혹시 우리가 가족에게 버림받은 경험이 있는가? 그러나 교회 안에는 혈육보다 더 나은 참 가족들이 많다. 어떤 자는 교회 안에서 훌륭한 신앙의 동지를 만나면서 부터 인생의 꽃이 핀 사람도 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행하는 좋은 친구 만나기를 기도해야 한다.

7월14일(화)/누가복음8:22-25

제목: 예수님의 꾸짖음

예수님께서 큰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셨다. 그는 갑자기 불어 닥친 광풍을 잔잔케 하실 때 독특한 표현법을 쓰셨다.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24절)였다. 이 “꾸짖다” 라는 표현은 복음서에 자주 나오는 말이다.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시니 귀신이 물러가고,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니 그들이 물러가고, 병을 꾸짖으시니 병이 물러가고 성난 파도를 꾸짖으니 파도가 물러가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지르시니(막15:37) 즉 죽음의 세력이 물러갔다. 예수님은 항상 꾸짖으시는 분이다. 이 ‘꾸짖음’ 은 적에 대한 승리의 선언이다. ‘물러감’ 은 패배당한 적의 모습이다. 예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사탄의 세력을 꾸짖으시는 분이다. 그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병마를 꾸짖고, 환란을 꾸짖고, 원수를 꾸짖어서 물러가게 하시는 분이다. 그의 능력은 추상적이지 않다. 그는 실질적인 분이시다. “예수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라는 찬송(340장)은 이 실질적인 예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의 고백이다. 사탄을 꾸짖고 호통치는 대장이 옆에 있으니 우리는 너무 안심이 된다.

7월15일(수)/누가복음9:26-39

제목: 귀신의 전략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귀신은 일명 군대 귀신이였다.(27-30절) 예수님은 그 군대귀신을 그 사람에게서 뽑아 돼지 떼에게로 옮기셨고(32,33절) 이 소문은 파다하게 퍼졌다. 군대귀신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인격과 정신과 육신을 완전히 파괴하였다.(27절)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런 귀신의 역사가 허다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사람의 개성과 인격을 파괴하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현세기에 들어와서 귀신의 전략이 바뀌었다. 귀신은 현시대의 세상의 문화적 메카니즘 통해서 자신의 세력을 펼쳐나간다. 악령들은 인간의 문화와 가치관을 혼동시키려 한다. “즐길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즐기라. 가질 수 있으면 최대한 가지라 그것이 성공이다” 가르친다. 그들은 욕심과 욕정과 욕망이 올라오는 대로 속 시원히 처리하며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이라 가르친다. 온통 메스컴과 잡지는 식욕, 성욕, 출세욕을 자극한다. 사탄의 전략이 바뀌었다. 현대 교회는 마침내 세상 문화를 선택한 귀신을 때려잡는 기동타격대이다.

7월16일(목)/누가복음8:40-42

제목: 하나님이 인생을 다루시는 법

야이로라는 하는 회당장의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그 회당장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청하였다.(41절) 회당장의 직책상 유대종교인들이 배척했던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행위는 논란이 될 만한 행동이었다. 그러나 자식이 죽어가는 마당에 그것이 무슨 소용인가? 당시 회당장은 존경받는 지도자요 권력가였다. 회당장은 요즘말로 하면 그 지방을 대표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그는 인생에서 오를 만큼 오른 사람이였다. 인생은 그에게 최고의 것을 아낌없이 주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에게 가장 귀중한 것을 앗아 가려간다. 인생이 그런 건가 보다.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기뻐할 수도, 적게 가졌다고 슬퍼 할 수도 없다. 복이 나에게 굴러 들어온 것 같은데 어느날 보면 사라지고 없고, 또 사라진 줄 알고 실망하여 앉아있으면 어느새 내 옆에 다가와 있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이 인생을 이렇게 다루시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가졌다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요, 또 너무 궁핍해서 도둑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7월17일(금)/누가복음8:43-48

제목: 일대일로 만납시다.

12년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있었다. 이 여인은 엉터리 시술을 12년 동안 받고도 치료받지 못하고 몸과 마음이 다 탕진된 여인이었다.(43절)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중 속을 헤집고 들어가서 마침내 그의 옷자락을 만졌다.(44절) 그 순간 치유의 능력이 그녀의 몸에 전달되었다. 이를 아신 예수님은 그 불쌍한 여인을 자기 앞으로 돌려 세웠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 마주섰다.(47절) 그리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놀라우신 예수님의 선포를 들었다. 여기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전인적인 구원, 즉, 육체, 마음, 영혼이 다 구원받았다는 뜻이다. 그녀는 군중 속에서 그의 옷을 만짐으로 이미 몸은 나았지만 예수님과 일대일로 서면서 그녀는 전인적인 치유 즉 몸과 마음과 영혼의 병까지 치유받았다. 사람은 누구든지 항상 예수님 앞에 일대일로 서야 한다. ‘나와 당신’이라는 관계로 매일 마주 서야 한다. 이 때 비로소 우리에게도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 매 주일 예배드리는 군중 속에서만 만나는 우리의 관계(예수님과 나)는 자칫 추상화 될 수 있다.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